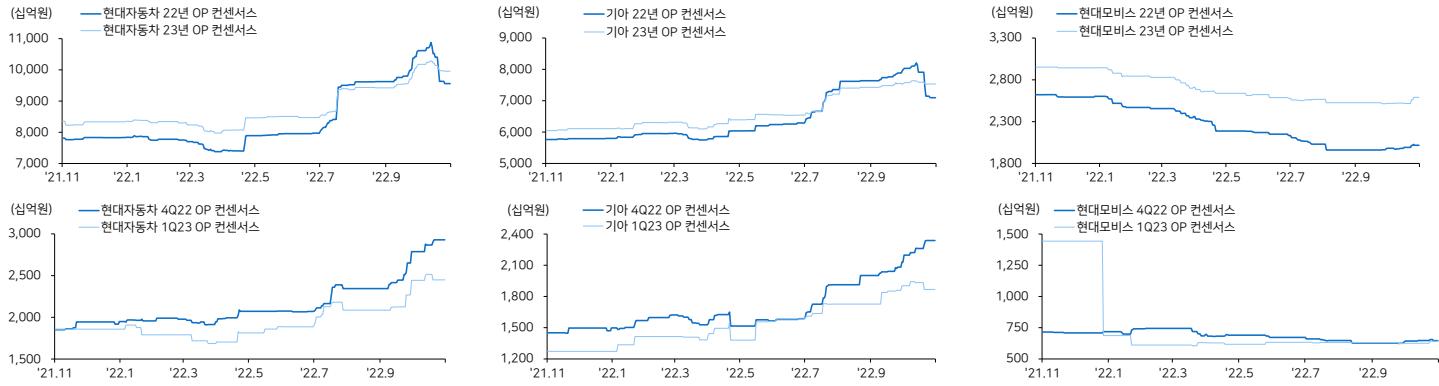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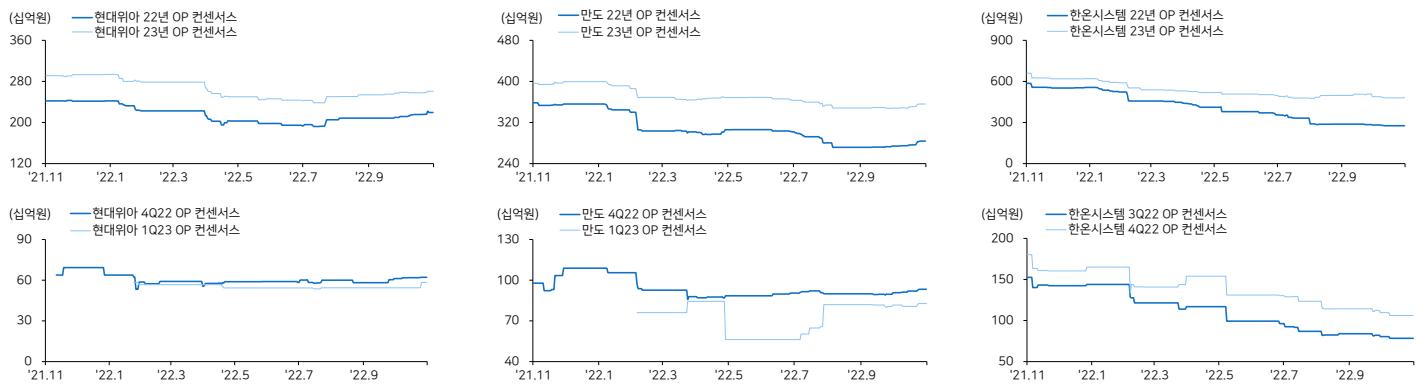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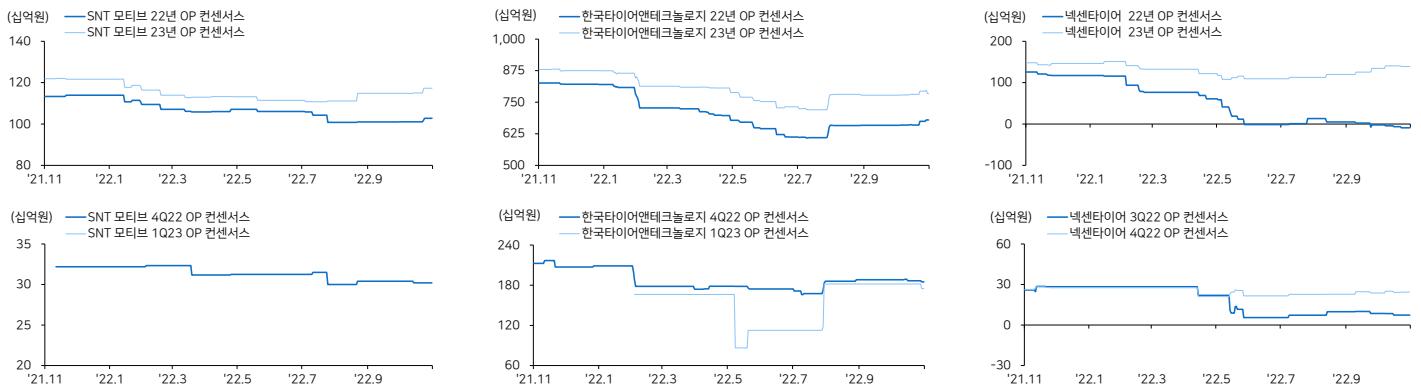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공화당 美 우선주의·반종색 더 강해…IRA 개정 가능성 회복 (미데일리)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우세로 마무리된 IRA 원화 기대감이 커졌으나, 전면 개정 가능성은 회복하여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한국산 전기차·차전기 기업이 대비할 시간을 벼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

<https://bit.ly/3tdVVQs>

미국 버스회사 "도독질 철린지"로 손해…현대차·기아 고발한다" (연합뉴스)

미국 하이아우주 클립먼시(市) 차량 "도독질 철린지"와 관련해 현대차·기아를 고발할 예정. 현대차·기아 도난 사건이 급증에 따라 시와 소비자들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

<https://bit.ly/3DXehGz>

EV Black Friday? Electric Vehicle prices improved for consumers in October (electrek)

미국의 10월 전기차 가격은 전월 대비 2.3% (2,286달러) 하락하며 8월부터 2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 10월 평균 EV 가격은 64,249달러를 기록. 반면 선제 신차 가격 평균은 럭셔리/SUV 판매로 인해 승가하여 48,281달러를 기록.

<https://bit.ly/3DMx4I4>

BMW's electric vehicle lineup will include lower-priced models (electrek)

BMW CEO 올리버 카시는 BMW가 프리미엄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핵심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저가형 시장에 떠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언급. 이는 전체 투자의 3/4를 럭셔리 시장에 할당할 계획인 mercedes-benz와는 대조되는 발언.

<https://bit.ly/3tfst8W>

中 선우다, 폭스바겐 배터리 공급망 뚫었다 (THE GURU)

중국 배터리 업체 '선우다'가 독일 폭스바겐 공급망 진입에 성공. 하이브리드카에 배터리팩 시스템을 납품하기로 함. Geely/SAIC 등을 고객으로 보유. 르노/닛산과 협력 중. 글로벌 10위권 내 배터리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중.

<https://bit.ly/3zY1BOE>

기아, 모하비 기반 픽업트럭 내놓나… "테스트카 발견 보도" (뉴스1)

기아가 모하비 기반 픽업트럭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업계에서는 기아가 픽업트럭을 내놓는다면 전기 픽업트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현대차 쌍티크루즈에 이은 북미 진출 모델이 될 가능성도 높음.

<https://bit.ly/3tnplrD>

Tesla Shanghai adds to inventory at highest rate ever in October (Reuters)

CMBI 데이터에 따르면 Tesla가 10월 상해공장에서 87,706대의 차량을 생산. 71,704대의 차량을 인도하여 16,002대의 차량 최고지 재고를 기록. Tesla는 베이징 소홀을 폐쇄하고 할인행사를 주기하는 등 소매판매 전략을 재편 중.

<https://reut.rs/3WPfjwZ>

Rivian misses quarterly revenue estimates (Reuters)

리비안은 3Q22 전분기(4,467대) 대비 증가한 7,363대를 인도하여 컨센서스(5.5억달러)를 하회하는 5.36억 달러 매출액을 기록. 분기말 현금은 138억 달러로, 리비안은 2025년까지 현금으로 운영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확신.

<https://reut.rs/3UlgIn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